

“농업을 통해 지역 발전 이끌겠다”

익산시 미래농정국, 출범 1주년 기념 성과 · 올해 추진방향 대해 농업인들과 공유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농업인 중심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북부지역 농업행정타운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미래농정국의 1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그동안의 성과와 2018년 추진방향에 대해 농업인들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념행사는 익산시의 우수한 농산물 전시와 체험행사,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2018년 협치농정을 강조하는 퍼포먼스 농정 발전을 위한 농업인과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익산시 미래농정국(국장 유희환)은 지난 1년 동안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거버넌스 구축 지역농산물의 유통 혁신, 농촌체험관광 종합지원 체계 구축 ICT 첨단농업 육성 및 작목 구조개선 등을 중심으로 농정을 추진했다.

첫째, 익산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을 위해 농업인이 중심되는 농정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농업정책에 대한 자문 및 제안 역할을 하는 '명예농업시장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하는 '희망농정위원회', 지역농축협과 함께 상생협력 사업을 만드는 '상생협력단' 등을 구성·운영하며 중앙부처와의 소통 강화 및 농업현장 중심의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했다.

둘째,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행정 주도로 전환하는 '식품산업과 유통의 혁신' 기틀을 마련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디프레시웨이와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확대(500ha~1,300ha)하고 (주) 팔도미당 가락물에 홍보판매관을 개관하여 23개 업체 80여 품목을 입점시켰다.

셋째, 활기차고 사람찾는 농촌마을

을 만들기 위해 농촌체험관광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농촌마을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 농촌협력지원단을 설립하여 농가교육 및 작은축제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체험지원 육성을 위해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관광의 날 행사'를 비롯해 작은축제와 판파티를 개최하였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ICT 첨단농업 육성 및 작목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시설원예농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간헐형 스마트팜 보급과 아열대 작물 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신소득작물로의 전환과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했다.

익산시 미래농정국은 그동안 다진 기초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18년 미래농정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정을 농업인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농업회의소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농정거버넌스를 완성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푸드시스템을 구축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로컬푸드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말산업을 우리시 신성장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언제나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농정을 구상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지난 1년 간 함께 고민해준 농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농업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농업을 통해 익산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석재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 추진 · 발전 도모

익산시, 석제품 전시홍보관 조성 불거리 제공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2018년 익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석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2006년부터 시작된 석제품 전시홍보관 조성공사가 2018년 3월 경 개관하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백제문화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던 석재산업을 알리고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제품 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 70억 원(국비 33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31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만1,718㎡(건축물 470㎡) 규모로 조성했다.

전시홍보관 내부는 전시관매센터 및 전시관을 운영하고 외부는 야외 전시관매센터 및 야외 광장을 활용해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전시관매센터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해 실내 4개소와 실외 20개소에 매장을 임대하고 입점업체에게는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150

만원 지원한다.

또한 시는 최근 석재업체의 사양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분 폐기물 운반비 지원사업을 통해 석분 폐기물 운반비를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국 돌문화 산업전을 통해 경제적 부가치와 예술성이 가미된 각 석재분야의 독창적이고 상품성 있는 제품을 발굴한다.

전국 돌문화 산업전은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에서 전국돌문화축제위원회 주관으로 10월 경에 개최해 산업작품 공모전 전국석재산업대전, 명장 조각작품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석재업체 노후기계 및 환경개선을 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기업의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난해 초원사진관을 찾은 관광객은 외국인 5,005명을 포함한 438,592명으로 작년대비 23% 상승하였으며, 군산시 전체 관광객의 11%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군산 초원사진관 관광객들로 연일 장사진

군산시 시간여행마을에 위치한 초원사진관이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초원사진관은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로, 제작진이 미망한 촬영지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사진관을 찾아다니다 겨우 발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으며, 내부에는 촬영당시 사용된 사진기와 선풍기 등 소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영화 팬들의 추억을 자극한다.

또한 인근의 근대역사박물관과 동국사 히로쓰 가옥 등 근대문화유산 특유의 정취와 절묘하게 어울려 군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 때문에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초원사진관을 찾은 관광객은 외국인 5,005명을 포함한 438,592명으로 작년대비 23% 상승하였으며, 군산시 전체 관광객의 11%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에도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에 대비하여 ▲밤 10시까지 운영

시간 연장 ▲사진관 인근 쉼터와 그늘 대폭 확충 ▲영화의 거리 조성 및 야간경관 조명등의 관광콘텐츠 개발 ▲다양한 이벤트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시간여행마을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초원사진관은 군산시 관광의 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설맞이 온누리 상품권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할인

군산시에 따르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로 확대된다.

기존 현금 구입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2.1~2.14)하고, 개인 월 구매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2.1~2.28)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옥구농협 '뜻있어 신동진살' 세대문구청 학교급식 쌀로 공급

군산시 옥구농협 '뜻있어 신동진살'이 올해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간 서울 세대문구청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로 공급된다.

서울 세대문구청 학교급식 평가단은 전국 RPC에서 신청한 서류를 1차적으로 심사하여 현지도정시설과 농가 계약재배현황 등 2차 현지실사를 실시한 후, 지난 25일 12차 심사를 통과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판을 평가하는 최종 품질평가회에서 옥구농협 '뜻있어 신동진살'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로 최종 선정하였다.

김미정 농산물유통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기업 내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 등 새로운 소비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재해·재난 대비 비상체제 구축 완비

건설기계익산시협의회와 안전지원 위한 협약 체결

익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전국건설기계익산시협의회와 지역사회 봉사 및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설기계익산시협의회는 재해·재난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중장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응급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건설기계 장비를 투입하고 응급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이번 협약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설 개펄대형 집중호우, 잦은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장비를 제때 지원받지 못해 응급복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건설기계장비 지원으로 응급복구와 인명·재산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익산시 건설기계협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대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시는 지난 28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 주재로 분야별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세부추진계획 보고회는 각 분야별 2017년도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2018년 10월까지 단계별 추진계획 보고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정양원 기자

김철모 부시장은 “전국체전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완벽한 대회 준비와 손님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체전을 계기로 익산의 문화·관광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체전(2018.10.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10.25~29)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하고 익산시를 포함 14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정양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익산시 Dream Hub GUNSAN